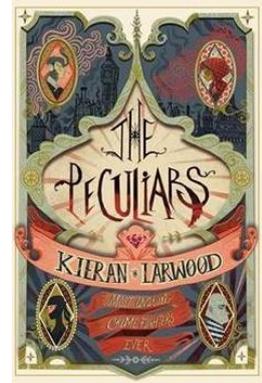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THE PECILIARS
가제 : 괴짜들
저자 : Kieran Larwood
출판사: Chicken House Ltd
발행일: 2018년 1월 4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독일, 헝가리, 네덜란드 판권 계약 체결
- * 2011년 타임/치킨하우스 출판사 아동 소설 대회 우승작
- * 2017년 블루 피터 상(Blue Peter Award) 수상작, 베스트셀러 『Podkin One-Ear』 작가의 데뷔작

운몽이 짙은 색 얇고 가느다란 털로 뒤덮인 늑대소녀 세바와 만만치 않게 독특한 친구들이 빅토리아 시대, 런던에서 벌이는 활약이 새로운 제목으로 재출간된다. 2011년 출판사 소설 대회 우승작으로 첫 출간된 『Freaks』가 『Peculiar』라는 새로운 제목과 더욱 화려한 일러스트가 돋보이는 표지로 돌아온다. 우승 당시 타임지로부터 “필립 풀먼이 남긴 불멸의 소설, 샐리 록하트를 떠올리게 한다”는 평을 받은 이 소설은 특별한 외모와 능력을 보유한 존재들이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살다가 순진한 아이들을 납치한 악당들을 통쾌하게 무찌르는 과정을 흥미진진하게 그린다. 늑대소녀 세바와 빛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일본 소녀 시스터 문, 쥐와 소통할 수 있는 마마레트, 짐마차에 앉으면 절반을 꼭 채울 만큼 거대한 거인 기간투스, 그리고 독설과 막말만큼 지독한 악취를 풍기는 원숭이 소년 멍키보이까지, 다섯 명의 ‘괴짜들’은 템즈 강변에서 사악한 손길을 뻗친 사람들을 향해 각자 특별한 기술을 마음껏 발휘한다.

원래 세바가 있던 곳은 항구가 바로 앞에 있는 아주 작은 바닷가 마을의 한 구석에 마련된 개인 전시관이었다. 1851년, 한때는 관람객들로 자주 드나들던 ‘그런치거들 호기심 세상’은 기차여행이 가능해진 이후 사람들이 새로운 곳을 찾아 다닐 수 있게 되면서 하루 종일 먼지만 폴폴 날리는 폐허가 되고 말았다. 전시관 주인인 그런치거들은 어떻게든 사업을 되살려보려고 1년 전에 가진 돈을 거의 다 쏟아 부어 새로운 전시 동물을 데려왔는데, 결과는 대실패였다. 머리가 두 개 달린 양, 플로피는 세바 바로 옆에 있는 우리에서 내내 쓰러져 누워 있다 구슬프게 울기만 했고, 가뭄에 콩 나듯 찾아오는 손님들은 돌을 번갈아 가며 노려보다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다. 멀리서 보면 고무잡잡한 피부로 보일 정도로 피부에 찰싹 달라붙은 갈색 털과 밖으로 빼죽 튀어나

은 송곳니는 사람들이 세바와 마주보면 가장 먼저 포착하는 특징이었지만, 사실 세바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 책 몇 페이지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냄새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뛰어난 후각이 강아지처럼 핑크색이 도는 코에 숨겨져 있었다. 그런치거들은 세바가 글자를 읽고 쓸 줄 안다는 사실도, 후각이 엄청나고 밤에 모두가 잠들면 머리핀으로 우리를 따고 나가서 부둣가를 실컷 돌아다니며 온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다. 결국 우울한 날만 이어지던 어느 날, 세바가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냄새를 가진 남자 두 명이 전시관을 찾아와 세바와 플로피를 그런치거들로부터 넘겨 받았다. 언제부터 이런 생활을 했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세바는 두근대는 마음으로 플럼스커틀이라는 남자를 따라 나섰다. 그리고 마침내 커다란 캐러반에 모여 있던 다른 괴짜들과 만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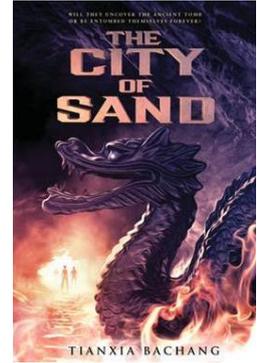
화가 나면 손톱이 늑대처럼 날카롭게 세워지는 세바도 굉장히 독특한 외모였지만 캐러반에서 만난 괴짜들은 하나같이 강렬한 인상으로 다가왔다. 철창 안에 갇혀 지독한 냄새를 풍기면서 세바에게 ‘소리지르는 꼴이 가발 공장에서 잘못 만든 가발 같다’며 비웃는 원숭이 같은 소년도 그렇고 전체 공간 중 절반을 독차지한 거대한 괴물 아저씨나 뭔가 움직이는 것이 들어 있는 작은 상자를 옆구리에 꼭 끼고 있는 여자, 아몬드 같은 두 눈을 반짝이는 낯선 동양인 소녀 모두 세바에게 엄청난 놀라움을 안겨 주었다. 런던 이스트엔드에서 플럼스커틀이 운영하는 괴짜 쇼에 출연하고 있다는 설명에 세바는 더욱 기가 죽었다. 그런 대도시에는 가본 적도 없고, 이런 희한한 존재들과 뭘 해야 하는지도 덜컥 겁이 났다. 하지만 모습과 달리 마음씨 좋은 괴짜들은 쇼를 할 때 외에는 플럼스커틀이 딱히 괴롭히거나 가뒀두지도 않는다고 설명해주면서 세바를 안심시켰다. 이들과의 특별한 동거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시작됐다.

생각보다 썩 나쁘지 않은 런던의 새 보금자리에 세바가 거의 적응할 무렵, 도시 전체가 흥흥한 사건으로 혼란스러워진다. 먹을 것도 없고 일자리도 없어서 템즈 강 주변의 쓰레기를 뒤지며 겨우겨우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의 아이들만 누군가가 몰래 납치를 해간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세바와 괴짜들은 돈에 눈이 먼 못된 악당들이 작정하고 벌인 짓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각자 주무기를 활용하여 불쌍한 아이들을 구하기로 결심한다. 세바의 후각, 시스터 문의 무술 실력,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을 누비는 마마 레트의 쥐, 기간투스의 돌덩이 같은 주먹, 멍키보이의 견디기 힘든 악취가 하나로 합쳐지고, 음침한 하수도과 지저분한 주점 뒤편에서 벌어지던 더러운 범죄자들의 계획이 하나씩 무너지는 과정이 통쾌하게 그려진다. 빅토리아 시대, 가난과 빈곤이 낳은 불편하고 안타까운 실제 상황을 유머와 판타지적 요소로 흥미롭게 그린 특별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키에란 라우드(Kieran Larwood)는 사우스햄턴 대학교에서 영어를 공부하고 팰머스 칼리지에서 그림을 전공했다. 2011년에 발표한 데뷔소설 『Freaks』는 타임/치킨하우스 출판사 아동 소설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제목 : CITY OF SAND
가제 : 모래 도시
저자 : Tianxia Bachang
출판사: Delacorte Press
발행일: 2017년 11월 21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 대만, 프랑스 판권 계약 체결
- * 중국에서 총 80만 부 이상 판매된 판타지 시리즈 8부작의 첫 번째 이야기
- * “중국의 고대 역사와 현대사가 어우러진 으스스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 작가가 모국에서 어떻게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는지 금세 알 수 있다.” - 「북리스트」

오랫동안 풍수지리를 공부해온 열일곱 살 소년, 후 티아니와 단짝친구 카이는 무더운 여름,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날 만한 모험을 꿈꾼다. 여행도 하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미신 같은 것만 쫓아다니는 아들을 영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아버지로부터도 벗어날 겸, 두 사람은 베이징으로 가서 좋아하는 일도 하고 돈도 벌어보자고 뜻을 모은다. 그러나 별 고민 없이 시작된 두 사람의 도전은 중국의 오랜 역사와 전설로 전해오는 이야기들과 얽혀 방대한 사막과 자연 속에서 벌이는 모험의 시작이었다. 중국에서 총 여덟 권짜리 시리즈로 출간되어 매 권 10만 부 이상 판매되고 중국 최대 검색사이트 바이두에서 톱 인터넷 소설의 자리에 오른 소설이 영어로 번역되어 더 많은 독자와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귀신 같은 건 진지하게 믿어본 적 없는 두 친구가 풍수지리 학자였던 티아니의 할아버지가 남긴 낡은 책을 발견하면서 시작된 모험은 중국의 방대한 역사와 전설, 기이한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는 사건들과 접목되어 흥미진진하게 이어진다. 한때 번성했지만 사라진 도시 징주에, 그곳에 건립된 거대 왕국의 여왕이 묻혀 있는 묘를 찾기 위한 티아이와 스카이, 그리고 특별한 인물들의 모험이 시작된다.

티아니가 <음양 풍수의 열여섯 가지 미스터리>라는 책을 발견한 건 집에 있는 선반 속이었다. 누군가 몰래 감춰둔 것이 분명한 이 낡은 책 속에는 할아버지가 끼워놓은 편지가 한 통 남아 있었다. 할아버지는 왜 이런 이상한 책을 읽고, 편지까지 숨겨두었을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불편한 관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이 책의 출처와 목적을 알면 밝혀낼 수 있을까? 오래 전 할아버지가 주인으로 모시던 사람이 임종 직전에 남긴 것으로 알려진 이 책은, 할아버지 손에 넘어올 때부터 마지막 장이 뜯겨지고 없었다. 묘를 만들기에 가장 좋은 위치, 결혼식을 올리기에 가장 좋은 날과 같은 정보들과 함께 기묘한 이야기가 담긴 이 책은 우연히 발견하기까지 존재하는지도 몰랐지만, 할아버지가 손자인 티아니에게 남긴 것이 분명했다. 가족들은 누구도 대답해줄 수 없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그리고 오랫동안 공부해온 고대 풍수지리 사상의 신비한 효용성을 확인해보기 위해 티아니는 전설적인 고고학자 첸 교수의 특별한 프로젝트에 동참하기로 결심한다. 첸 교수가 평생을

추적해온 꿈의 과업은 먼 옛날, 살아남기 힘든 거친 사막 건너에 세워진 ‘징주에’라는 도시와 왕족의 무덤을 찾는 것으로, 같은 곳을 찾으러 나섰다가 실종된 미국인 탐험가의 딸 줄리도 교수의 프로젝트를 돕기로 한다. 백만장자인 줄리는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기 위해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모험에 나서기로 하고, 사막을 무사히 빠져나가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현지 가이드도 구했다. 이들에게 풍수지리를 잘 아는 티아니와 용감무쌍한 그의 친구, 카이의 합류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첸 교수는 특히 땅과 하늘의 메시지를 읽어낼 줄 아는 티아니의 독특한 능력이 징주에를 찾을 수 있는 결정적인 한 방이 될 것이라 확신했다. 이렇게 각자의 뚜렷한 목적을 위해 뭉친 네 사람은 사막 가이드 아샷 아맛과 함께 태양이 이글대는 타클리마칸 사막으로 향한다.

작열하는 태양, 눈을 제대로 뜰 수 없게 만드는 거대한 모래 폭풍, 칼날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무시무시한 나무늘보, 동물의 살을 파먹는 개미에 이르기까지, 사막에서 맞닥뜨린 위기는 티아니 일행을 매 순간 사지로 몰아 넣는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기를 여러 차례, 마침내 이들은 잊혀진 계곡에 자리한 무덤을 찾아내지만, 사막에서 겪은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 만큼 훨씬 더 가혹한 시련이 시작된다. 그곳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악마의 영혼과 무수한 위험이 오랜 세월 묻혀 있는 지옥 같은 구덩이었다. 실체를 알 수 없는 동물들과 물리는 순간 목숨을 잃게 만드는 독사, 무덤에 걸려 있는 주문, 그리고 티아니가 찾은 책에 언급되어 있던 수천 년 전의 이상한 예언이 헛소리가 아니라 사실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행은 보이지 않는 유령에게 쫓기기 시작한다. 무덤을 찾아온 무모한 탐험가들을 모조리 무덤 속에 누운 시체로 만들고자 하는 치명적인 힘이 점점 거세지는 가운데 과연 이들은 숨겨진 보물을 찾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무사히 안전한 곳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저자 소개>

티엔샤 바창(Tianxia Bachang)은 미술을 공부하고 헤어드레서, 사업가를 거쳐 현재 Zhang Muye라는 필명으로 글을 쓰고 있다.